

제3회 시모노세키 탈핵평화 간담회에 대한 짧은 보고서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박문수 신부

2014년 7월 3일. 출발.

한국 참여자 19명(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3명과 그 외의 예수회원 3명, 인천교구 3명,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 2명, 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여러 위원회 3명, 그 외에 1명 씩 의정부교구, 안동교구,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그리스도왕선교수도회, 예수회 이나시오영성연구소)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고 후쿠오카공항에서 이상원 신부님 (히로시마교구 야마구치 지역 대리)을 만나서 임대버스를 타고 시모노세키 노동교육센터로 도착하였다. 센터장 하야시 신부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하셨다. 임대 버스를 운전하신 분은 7월 4일과 7월 7일과 7월 8일 후쿠오카 공항까지 우리의 여행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셨다.

2014년 7월 4일. 모의 재판에 참여.

제2회 시모노세키 간담회의 발표 중에 이케나가 변호사가 핵발전소 재가동 반대 소송 내용을 소개했다. 겐카이 원전 소송의 경우 핵발전소 사고에서부터 손해를 당할 수 있는 한국 사람도 함께 원고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소송의 제 9 재판이 2015년 7월 4일에 사가현 재판소에 행하는 기회에 여러 변호사들이 가까운 곳에 모의재판을 재판과 같은 시간에 실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일행은 7월 4일에 사가현에 여행했고 원고인 김영근 신부가 재판에 참여하고 나머지 우리 일행은 가까운 곳에 모의 배판에 참여했다.

한국 참여자와 우리를 안내하는 일본인 몇 사람은 임대버스를 타고 사가현에 가서 모의재판에 참여했다. 재판 내용은 주민 7,686명의 원고단이 큐슈전력회사와 일본 국가 대상으로 겐카이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4기 모두의 조업금지를 요구하는 제소에 대한 재판 일부이었다. 원고단 소속인 김영근 신부는 사실 재판에 들어가서 보고, 나머지 우리 일행은 근처 미술관 강당에 가서 같은 내용에 대한 모의재판을 참관했다. 모의재판에 참여한 일본 사람(약 200명)들이 우리 일행을 기쁘게 환영했다. 저녁식사 할 때 일본관광장 카지야마 신부와 미츠노부 신부가 와서 함께 했다.

2014년 7월 5일과 6일

간담회 발표, 질의응답, 그리고 조별 토의. 발표내용은 1)후쿠시마 원전 사고

와 그것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방사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문제를 덮어 놓는 거짓말도 있다. 피폭 지역에 DNA상처와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심리적 과 사회적 손해도 많다. 2)삼척에서 어떻게 운동해서 반핵 시장을 당선시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운동의 어려움. 3)부산 지방 선거에 먼저 <주민 인증 탈핵 후보>를 추진하도록 했지만 그 결과로 추진하게 된 오거돈 후보는 탈핵운동을 부분적으로만 한다. 그리고 당선된 서병수는 신고리 원전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래도 이 운동 때문에 탈핵 이슈가 부산 사람들에게 더 인식하게 되었다. 4)밀양 농성장의 강제철거 사건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눈물 흘렸다. 5)피폭과 방사성 전문가의 발표. 후쿠시마 사고 후 방사성이 심한 작은 공간, 즉, '핫스팟'들이 널리 퍼져 있는데, 오사카까지에 있다. 음식의 안전한 방사성 기준은 일본정부가 너무 높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준의 음식을 오랫동안 먹으면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

조별토의.

일본어 조: 함께 모여 소통하는 것, 뉴스를 전달하는 것 등 중요하다. 두 나라의 운동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보완성이 있다.

한국어 조: 인터넷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 연락하고 이 연락을 합치고 보내는 것은 인권연대연구센터가 할 것이고 고리 원전을 금지시키도록 입법을 위한 활동을 양기석 신부님이 추진하고, 가톨릭 신자 대상으로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같이 만들도록 결정했다.

2014년 7월 7일

이와이시마를 방문. 임대 버스와 배 타고 갔다. 이 섬 주민들은 32년 동안 핵발전소 반대하고 그 건설을 막았고 그들의 섬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생명을 존엄하고 이웃들 간의 화해와 협조를 이끌어 준 주민 두 분의 발표를 감동 있게 들었다. 밤 10시 넘어서 노동교육센터로 돌아왔다.

2014년 7월 8일

임대 버스 타고 후쿠오카에 가서 큐슈전력 회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아오야기 씨를 방문했다. 그는 겐카이 원전의 위험성을 주장하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텐트 생활하여 농성해 왔다. 점심을 같이 먹고 나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귀국했다.